

SK화학, 독한혁신 '3R' 추진

(Reduce 최소화·Replace 대체재·Recycle 재활용)

친환경 사회적가치 창출 앞장



SK종합화학이 비즈니스 중심의 '3R (Reduce 최소화·Replace 대체재·Recycle 재활용)' 추진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가치(SV) 창출에 앞장선다.

SK종합화학은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R&D 역량, 밸류체인(Value chain) 내 협력을 기반으로 3R 전략을 적극 추진, 초국가적 이슈인 폐플라스틱·페비닐 등 환경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3R 추진은 '독한 혁신'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그린 밸런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친환경 사업모델 개발로 환경적 부정효과를 줄이는 그린 밸런스를 언급하며 '독한 혁신'을 선언한 바 있다.

SV경영을 강조해 온 SK종합화학이 지난해 친환경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는 518억원 규모인데, 이를 3R 전략으로 구체화·고도화해 효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종합화학에 따르면 나경수 사장 등 임원은 지난 4일 친환경 사회적 가치 워크숍을 열고 3R 전략을 구체화했다.

3R 중 최소화(Reduce) 전략은 플라

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고결정 플라스틱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판매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재(Replace) 전략에서는 친환경 발포제와 친환경 용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제품, 저독성 용제 등의 개발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재활용(Recycle) 전략은 말 그대로 폐플라스틱과 페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SK종합화학은 우선적으로 식품·유통업체 등과 공동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설계 기술 개발, 재활용이 어



폐플라스틱·페비닐 등 문제 해결 대체품·재활용 기술 개발 본격화 밸류체인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화학산업 친환경 생태계 조성 선도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SK종합화학 친환경 SV 창출 위한 '3R' 전략

	Reduce(최소화)	Replace(대체재)	Recycle(재활용)
목표	동등한 성능 구현 사용량은 저감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 물질 대체	자원순환 구조 구축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결정성 플라스틱 HCPP·POE 판매 확대 HPR활용, 필름 슬림화 공장친환경 설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발포제 및 친환경 용제 판매 확대 생분해 제품에 대한 본격 검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용이한 소재 및 구조 설계 기술 개발 페비닐 활용 아스팔트 보완제 개발

자료/ SK종합화학

려운 페비닐을 활용한 아스팔트 보완제 개발 등을 통해 페비닐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3R 제품과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밸류체인 내 다양한 업체·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북미 공조시장 공략 가속

美 라스베이거스서 건축박람회 참가 멀티비 슈퍼5 등 공조솔루션 선보



LG전자는 미국건축가협회 건축박람회에 공조 시스템을 출품했다. /LG전자

LG전자가 북미 공조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인다.

LG전자는 6일부터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건축가 협회 건축박람회(AIAE 2019)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박람회에 '멀티비 슈퍼5'와 '멀티비 에스' 등 다양한 공간 맞춤형 공조 솔루션을 출품했다.

멀티비 슈퍼5는 혹한에도 난방 운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미국 북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멀티비 에스는 실외기 1대에 최대 16대 실내기를 연결하는 제품으로 인테리어에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 밖에도 LG전자는 크기와 무게, 소음을 최소화한 공조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에서 3년간 연 수입%씩 가파른 성장을 기록 중이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완 부사장은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공조솔루션으로 북미 시장에서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uk@

삼성SDS, 美센티넬원에 투자

차세대 보안 'EDR솔루션' 신기술 확보

삼성SDS가 클라우드 보안 토탈서비스 사업확대에 이어 투자를 통해 보안 분야 신기술 확보에 나섰다.

삼성SDS는 삼성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차세대 보안 기술인 EDR 솔루션을 보유한 미국 센티넬원에 투자했다고 9일 밝혔다. EDR은 PC, 서버, VDI(가상 데스크톱 환경) 등 단말에서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조치해주는 솔루션이다.

신종 악성코드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해킹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악성코드와 해킹공격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주는 EDR 솔루션이 부상하고 있다.

센티넬원 EDR 솔루션은 AI-머신러닝 기술로 다양한 악성코드 유형을 학습해 신종·변종 악성코드와 해킹공격

을 차단해준다.

또한 이 솔루션은 해킹 공격이 감지되자마자 침입경로 로그파일을 분석해 해킹 취약 경로를 막아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 시 EDR 솔루션이 탐지 즉시 랜섬웨어를 삭제해 무력화시키고, 피해를 입은 파일들은 미리 백업한 데이터로 복원시켜 준다.

삼성SDS는 센티넬원의 EDR 솔루션으로 PC 등 단말 보안이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S는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이과지오 투자에 이어 미국 애플리케이션 연계 솔루션 지터넷에 투자하는 등 차별화된 미래 핵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삼성·LG, 인도서 '중저가폰'으로 1위 탈환?

삼성전자, 갤럭시M40·A80 출시 LG전자, 'W10' 아마존 통해 선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달 인도 시장에 중저가폰 신제품을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샤오미에 쫓긴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갤럭시M40·갤럭시A80을 출시하고, LG전자는 처음으로 인도 특화폰을 내놓으며 인도 시장에 도전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11일 갤럭시M40에 이어 이달중 갤럭시A80을 인도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샤오미에 1위를 뺏긴 이후 중저가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며 선두 탈환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인도 시장에 갤럭시A2코어, 갤럭시A10, A20, A30, A50, A70 등을 출시했고, 갤럭시M10, M20, M30도 인도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인도 시장 1위인 샤오미는 이에 맞서 이달 12일 미9의 파생모델인 미9T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M·갤럭시A 시리즈의 선전으로 인도 시장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3월 1일부터 70일간 갤럭시A 시리즈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갤럭시 S10'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가 500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샤오미(960만대·30.1%)에 이어 점유율 22.7%(720만대)로 2위였다.

LG전자는 이달 중 인도 시장에 중저가폰 'W10'을 아마존 인도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물방울 노치' 디자인에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가격은 정

해지지 않았지만, LG전자는 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큰돈을 들일 필요 없는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필두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LG전자는 그동안 자사 스마트폰이 일정 점유율을 차지한 한국, 미국 공략에 주력해 왔다.

한편, LG전자는 W10에 이어 상반기 중으로 플래그십 제품인 G8 씀규의 유럽형 파생모델 G8s도 인도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포스코, 中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에 200억 지원

컨설팅 등 5년간 500곳 혜택

포스코는 5년간 총 2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으로 구성되며 포스코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혁신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스코가 2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억원 총 300억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사업당 최소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2019년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5년간 5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포스코는 포스코ICT·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포스코 인재창조원 등 그룹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스마트추진단을 구성해 참여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절감·재고관리·생산라인 자동화 등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은 포스코 고유의 생산현장 혁신기법인 'QSS(퀵 식스 시그마)'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과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제도이며 전문 컨설턴트가 체질소 혁신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참여기업에 직접 전수한다. /정연우 기자 yw964@